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6년 10월호

통권 제 16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9월 교우소식

새 교우

♣ 장연승씨(103구역), 하우스빌 고시원

☎ 011-9141-0577



♣ 최애경씨(55년생, 101구역), 종로구 소격동 126번지

☎ 722-8210(인도자: 전숙원 집사)



별 세

♠ 고 이길원 권사(유형근 교우 모친, 80세), 15일(금) 별세 17일(주일) 장례.

부 임

♠ 김 진 간사(광주여상 줄, 정릉교회 집사), 15일(금) 부임.

결 혼

♣ 윤영준(윤쾌용 씨 · 김종순 집사 1남), 9일(토) 오후 1시, 예배당.

♣ 고상요(고문곤 · 김휴숙 집사 2남), 16일(토) 오후 1시, 예배당.

환 자

♣ 김정수A 권사, 죽전호사랑병원 103호.

♣ 김진순 권사, 서울대병원 9514호.

♣ 강길녀 교우, 을지병원 6208호.

♣ 김순초 권사, 백병원 913호.

♣ 이순례 권사, 백병원 1202호.

♣ 김옥순A 권사, 고대부속병원 중환자실.

축 하

♠ 서동진군, 오페라 워크숍 정기공연, 30일(토) 오후 7시, 가톨릭대학교 콘서트홀.

이 사

♠ 김공환 집사 · 유연준 권사, 원서동 158-2 북촌 창우극장 5층 ☎ 743-0308

♠ 정태순 권사, 관악구 봉천4동 삼성A 102-502호
☎ 883-7359

출 국

♠ 정윤식 집사, 9월 17일~10월 8일 홍콩·싱가폴·미국 출장.

감 사

- ♠ 윤명렬·김혜숙 집사, 3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이춘우 권사, 10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06 안동가족 한마음 축제

9월 24일(주일) 예배후 풍문여고에서 약 380여명의 교인이 모인 가운데 <‘06 안동가족 한마음 축제>라는 제목으로 전교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예배가 끝난 후 풍문여고에 들어갈때에 교구지원국에서는 등록을 받고 단체티셔츠와 김밥, 떡과 물을 제공하여 점심식사를 시작하였다. 점심식사는 각 구역에서 준비해온 과일과 간식등으로 더욱 맛있고 풍성한 식사와 구역식구들간의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주제아래 믿음팀(1교구 및 주일학교)과 소망팀(2, 3교구 및 주일학교)으로 나뉘어 입장하였고 믿음팀은 주황색 셔츠를, 소망팀은 연두색 셔츠를 입어 구름한점 없는 가을하늘아래 색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교우들의 모

습은 서로 조화되어 한쪽의 풍경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입장 후 교구지원국 고문인 조기현 장로의 우렁찬 기도와, 박병욱 담임목사의 비장한 개회선언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부분적으로 게임진행을 ambrasia라는 프로덕션 소속의 민현기 실장이 맡아 사회로 진행되었다. 체육대회는 어린이로부터 은빛노년에 이르기 까지 서로 어우러져 더 높은 가을하늘 아래 한바탕의 가족축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종목 중, 깃터널속에 들어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천당체험, 어린이들의 게임인 색깔 뒤집기, 지네발 달리기, 홀라후프 돌리기, 줄넘기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단체게임인 줄다리기와 릴레이달리기 게임은 그 축제의 흥겨움을 더해 주었고 교회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즐거움이었다.

각 팀의 응원전도 매우 치열하였는데 믿음팀에서는 강정녀집사가, 소망팀에서는 안일현집사가 몸을 던져 열렬히 응원을 하여 모든 사람들이 목이 쉬도록 응원을 하였다. 특히 응원 파트너로 나온 남궁열집사는 요양중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또한 응원에 적극 참여하여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후 4시반 경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는 단체상으로 믿음팀이 차지하였으나 응원전에서는 믿음팀과 소망팀이 모두 열렬함으로 박수를 받았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선수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응원단으로 참여하였으며, 푸짐한 선물을 받고 돌아갔다. 기념상품으로 비누와 치약, 참여한 선수들에게는 각각 생필품들을 선물로 주었다.

마지막순서인 행운권추첨 시간에는 자전거, 축구공, 전기 다리미, 김치냉장고, 제주도 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놓고 추첨을 하였다. 이날 당회원들이 자전거 5대, 조기현 장로가 기념축구공 5개, 이정배 집사가 담채 및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을 협찬하였으며, 특별히 담채 최종 행운권 수상자는 아동부 박경서 어린이로서 우리 교회 운속교우의 딸인데, 그 가족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다.

모든 행사는 담임목사의 축도로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총 40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등 높은 참석률을 보였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등록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질서정연하게 온 교우가 협조를 잘 해주어 참으로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은 교우가 이 행사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진정한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구역연합예배

올해 하반기 구역예배를 시작하는 구역연합예배가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었다. 이번 구역연합예배는 여전도회 연합 특강과 일일기도회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수권사가 사회를 보고, 최문수 집사가 기도를 하였으며, 현금기도는 신선자집사가 하였다. 특히 임종대집사가 특송을 불러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박병욱목사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 전도학교의 안병채목사가 특강 강사로 오셔서 마태복음 28:19-20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도 간증이 섞인 말씀을 해주었다. 점심식사는 105, 106, 111, 205, 206, 305, 306구역에서 준비해 주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에 항존직으로 피택받은 자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7월 16일, 23일에 담임목사가 이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여름 휴가기간이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대상자는 총 38명으로 친교실에서 매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중이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1. 항존직, 청지기직, 지도력/ 9월 3일
2. 장로교회 신조,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와 국가 / 9월 10일
3. 교회와 문화, 교회행정, 예배를 위한 역할과 책임 / 9월 17일
4. 교육, 선교, 친교를 위한 역할과 책임/ 10월 15일
5.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 항존직의 청지기 생활, 직분자와 신앙생활 / 10월 22일
6. 직분자와 사회생활, 직업, 가정 / 10월 29일
7.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 1 / 11월 5일
8.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 2 / 11월 12일
9.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 3 / 11월 19일
10.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4 / 11월 26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1월부터 진행되는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는 전교우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메, 한가람남선교회 수련회

9월 22일-23일 한메남선교회와 한가람 남선교회가 수련회를 다녀왔다. 한메 15명, 한가람 4명이 함께 안중혁목사를 모시고, 홍천대명콘도에서 세미나 겸 수련회를 개최하여 많은 것을 익히고 훈련을 하였다. 안중혁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권면하여 감동을 주었고, 오랜만에 체력을 점검하는 발야구는 가을의 문턱에 선 계절만큼이나 세월을 지낸 몸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

서로간에 신앙의 간증들을 나누고 예수를 영접한 동기들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친교의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교회 선거제도 등에 관하여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주제토의 세미나에서는 모두가 관심사가 컸지만 토의시간에 비해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아침 예배인도는 추영일 장로님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권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감명을 주었고, 이번 세미나 및 수련회 평가결과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서 회원들간에 더욱

결속을 다지며, 의미있는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다.

추석맞이 독거노인 반찬배달

사회봉사국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에게 특별한 반찬을 준비하여 배달하였다. 주방봉사는 이윤희 사회봉사국장을 비롯하여, 최서섭집사, 이태평교우, 최명자집사, 이춘우권사, 김정희권사, 최명애권사, 김경호권사, 신선자집사, 박선숙집사, 황정렬집사가 정성껏 해 주었다.

반찬은 나박김치 2kg씩과, 부추빈대떡 2장, 코다리조림 300g, 소고기 500g, 과일 사과 3개, 배 5개씩과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 이날 특히 장은라권사가 떡을 1말을, 박정음장로가 배 5상자를 기증하여 주었고, 신경희권사가 30만원, 김방자집사가 50만원을 후원하여 주어서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다.

김동형집사와 황금석집사가 운전을 하였고, 장문자장로, 박정희집사, 안재경교우가 각 집을 돌아다니며 추석인사를 나누고 배달을 하였다.

팔봉교회 방문

국내선교국에서는 안중혁목사, 국내선교국장인 강명준 장로, 김연숙집사, 김군중집사가 미리계획된 일정에 따라 9월 16일(토) 오전 7시에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팔봉교회에 다녀왔다.

처음생각에 지도상 강원도 홍천이라 거리가 멀고 길이 험할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지역여건과 전형적인 우리농촌의 인구감소에 의해 어려움이 있으나, 아담하게 예쁜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현재는 교회 부지 중앙에 차도가 나서 교회는 대로변 옆에 있고, 일부부지는 쓸모없이 된 곳도 있으며 사택과 교회가 도로로 나뉘어져 있었다. 교회 근처에 팬션들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회집수 하향추세로 부흥이 안되는 느낌이 들었다.

팔봉교회는 세례교인이 16명이고, 총회집수는 20-25명정도가 된다고 한다. 교인의 평균연령은 68세로 대부분의 농촌 현실처럼 고령화되어 있다.

담임목사님(장석배)과 사모님의 노력, 우리 교인들의 기도로 최근에는 새로운 교인 몇분이

오셔서 목사님이 힘이나신다는 말씀에 희망이 보였다. 아울러 몇가지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성경책 등 지원도 희망하였다.

9월 담임목사 동정

9월 12일 대전신학대학교 채플 설교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제91회기 새로운 임원진 구성 마무리”

제91회 총회가 개막돼 한 회기동안 총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총회 개막과 함께 회무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제91회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이광선목사(신일교회)와 부총회장 김영태목사(청북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도록 돼 있는 임원선거 조례 제2장 제2조 1항에 따라 총회장이 회의석상에서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됨을 공포함으로써 마무리됐고 부총회장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단독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소견발표 후, 투표없이 전원 기립박수로 선출했다.



이어 정·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돼 있는 임원선거 조례 제2장 제2조 8항에 의거해 총회장이 추천한 명단을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고한 뒤, 총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임원선거가 마무리됐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이광선(서울노회 신일교회) <부>김영태(충청노회 청북교회) ▲서기:최임곤(전주노회 전주신일교회) <부>이순창(평북노회 연신교회) ▲회록서기:조석원(경북노회 내당교회) <부>김희원(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회계:정종성(부산동노회 가나안교회) <부>오정수(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주기도문 사도신경 전격통과”

찬성 6백87표로 가결,

주기도문-즉시사용 / 사도신경-노회수의

제91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안이 3년 만에 전격 통과됐다. 총회 이틀째 오전 회무에서 다뤄진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안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주기도문과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이 모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밟아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재번역안은 총회 임원회 자문기구인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위원장 이종운 목사의 제안 설명에 이어 찬반에 대한 총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과 ‘20여 군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붙여 9백59명 중에서 6백87표를 얻어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재번역안이 헌법 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헌법 교리 부분이기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는 “헌법 교리 부분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해 각 노회에 수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헌법위원장의 자문을 얻어 표결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재번역위원장 이종운 목사는 “주기도문은 이번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번역안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사도신경은 앞으로 전국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3분의 2의 찬성을 얻게 되면 내년 제92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인 선교사들이 쓰는 몽골행전”

92년 강영순 선교사 첫발 디딘 이후 4만 교인 결실, 몽골인 사역자도 증가 추세 몽골 선교15주년 대회 중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몽골복음주의협의회 관계자들이 몽골복음주의협 사무실에서 환담을 갖고 있다.



몽골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몽골이 70년 동안의 구 소련 지배를 벗어나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표방한 1989년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실제 몽골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13세기였다는 게 교회사가들의 전언이다.

13세기 야콥과 기독교 역사가인 헤브라이오스가 기록한 교회사를 살펴보면 11세기부터 13세기 초에 걸쳐서 외몽골 유역에 거주하던 몽골계 유목민족인 케레이트 부족 중 10만명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결국 몽골의 현대 선교 역사가 태동하기도 전부터 이 지역에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복음의 토양 위에서 새로 쓰여지는 몽골 사도행전의 역사는 특히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기도 속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몽골 개방 직후인 지난 92년 강영순선교사가 첫발을 디딘 이후 현재까지 2백50여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교회개척 의료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본 교단에서도 현재 19가정을 몽골에 파송했다.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사역의 결과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단 한명도 없었던 몽골에 현재는 4만2천8백36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수의 급증에 따라 교회의 수도 함께 늘고 있다. 울란바타르와 다르항, 오르홍 등 몽골의 주요도시에만 4백83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현지인 사역자들도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몽골 목회자들의 연합체인 몽골복음주의협의회(회장:아마글랑)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17명의 몽골인 목회자가 안수를 받았으며, 이미 몽골 5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6일 울란바타르 시내에 위치한 몽골 복음주의협의회 사무실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김명혁)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아마글랑회장은 “몽골인들의 성품이 복음을 받아 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무척 적극적”이라면서, “이 결과 지금과 같은 복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한국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몽골인들의 손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고 밝혔다.

몽골이 이미 오지 5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놀랐다는 김명혁 목사도 “몽골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몽골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선교의 거점국가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실에도 불구하고 몽골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이단교회의 증가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다. 울란바타르의 신흥개발지에 대형 선교센터를 세운 몰몬교를 비롯해서 문집단을 위시한 국내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단체들이 몽골에서 직·간접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

몽골 한인선교사회 양재철 회장은 “이단종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현지선교사회에 와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단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고 몽골에서 대형 집회를 갖는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이단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선교지에서 이단들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몽골교회에 선교지와 사역을 이양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선교 이양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1, 2년 사이에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도 현지 선교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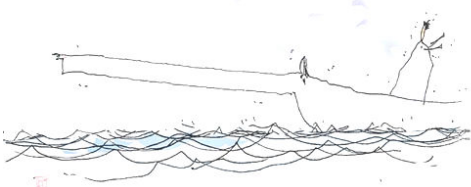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이양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인 최초의 몽골 선교사인 강영순 선교사(영원한 생명나무 교회)는 현지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양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교회를 이양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언젠가는 이양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이를 위해 장기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몽골 선교는 그동안 교단을 넘어서서 연합과 일치로 실천한 모범적인 선교 모델로 손꼽혀 왔다.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몽골선교사회는 최근 폐막된 몽골선교 15주년 기념대회에서 올란바타르 선언문을 채택하며, 연합사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재철 목사는 "15년 동안 선교사들이 서로의 사역지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 전문 사역을 펼친 것이 몽골 선교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태그: "소금 카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세상의 바다로...!”



“2006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

지난 8~9일 월드비전과 SBS가 공동으로 진행한

‘2006 기아체험 24시간 방송캠프’가 국내 청소년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회장:박종삼)과 SBS가 공동으로 진행한 ‘2006 기아체험 24시간 방송캠프’가 국내 청소년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지난 8~9일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에서 개최된 ‘기아체험 24시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끼를 펼치는 ‘굶주림의 아우성’, 난민촌 간의 단체게임인 ‘열전! 웨민파이터’, 난지캠핑장 주변을 행군하며 코스별 지령을 수행하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의 프로그램을 참가하며

24시간 동안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냈다. 또한 방송캠프에서는 싸이, 슈퍼주니어, SG워너비 등의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기아의 고통을 체험하는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기아체험 참가 및 자원봉사로 6년째 참여하고 있는 조두리씨(21, 순천향대)는 “올해는 예년보다 기아체험 캠프시기가 늦춰지고 비까지 오는 바람에 많이 춥고 힘들었다”며 “하지만 그만큼 지구촌 난민 어린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송캠프에서는 ARS 후원전화를 통해 8~9일 24시간 동안 3억2천7백22만4천 원의 후원금이 모아졌으며 매월 2만원으로 후원할 수 있는 정기 아동후원자 수도 1만3천3백여 명이나 돼 모금 규모에 있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월드비전 측이 전했다. 또한 방송캠프에서 진행된 ‘스타의 시간을 팝니다’ 경매 금액으로 8천2백1만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다. 탤런트 김혜자씨와 박세리, 손호영, 정준호, 조세현씨가 경매로 붙여졌으며 낙찰된 시청자들은 스타와의 1대 1 데이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9일에는 한비야 긴급구호팀장과 함께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여의도 둔치부터 난지캠핑장까지 10km를 걷는 ‘기아체험 24시간 걷기캠프’가 개최됐다. 월드비전의 기아체험은 24, 30, 40시간 별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체험 40시간을 진행하는 뉴질랜드의 경우 국민의 절반정도가량이 기아체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1회 아시아 기독교 생명 농업 포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인한 아시아 지역 소농들의 붕괴와 생명가치의 경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적 해법은 무엇인가?

아시아의 기독교 농민과 목회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생명농업운동'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농업의 기법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 다시 말해 서구 에너지에 기반한 도시문명은 더 이상 희망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예견하고 경제적인 시각에서가 아닌 생명의 시각으로 인간사회를 형성하자는 가치관 중심의 변화운동이다.

지난달 25~30일 서울과 충남 홍성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제초제, 농약 등을 치며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에 생명을 부여하는 방법의 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인도, 호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생명농업 관련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기독교생명농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대표:한경호)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4월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개최됐던 제1회 '대안농업 지구포럼' 후 아시아 차원의 포럼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 그 발단이 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한 장운재교수(이화여대), 한경호목사(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대표), 노자끼선생(일본 ARI 교장), 홍순명 선생(풀무학교 전공부 교장) 등의 발제가 우리나라의 생명농업 현황을 잘 파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정호진목사(인도 농업선교사), 배현주교수(부산 장신대), 제안스 제야비라신간 목사(스리랑카) 등의 성서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생명농업이야말로 경제적 착취와 양극화, 혼돈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번 포럼에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장운재교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제와 배현주교수의 '로마제국의 경제와 신약성서의 대안경제'라는 성서연구는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잘 분석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대안을 모색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장운재교수는 번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질병 발생으로 지구환경과 인간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시켜 후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점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지배를 강화시키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실례를 들어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배현주교수는 “과거 팔레스타인 농민 사회의 경제관계 또한 로마제국 엘리트들의 지배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정적 재분배의 착취적 패턴을 비판하고 농민의 도덕경제를 지원하고 약자들을 돌보았다”며 현 세계정세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6년 10월호 · 통권 제164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박 병 욱

편집인 : (교회소식) 구익숙

(교계소식) 안중혁

발행일 : 2006년 10월 1일

